

젊은 어린이와 노인의 희망

용신 봉사상 받은 정관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뜻밖에 귀한 상을 받게 돼 많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용신 봉사상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인 채용신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년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가운데 1명을 선정, 수상하는 값진 상이다.

“결식아동과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슬산수법에 보이고 싶었고, 이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93년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관장소임을 맡아 지금까지 133회에 걸쳐 1천1백여명의 무의탁 노인에 3천2백여 만원을, 750여가구의 불우이웃에 1천 9백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무의탁 노인 80명과 결식 아동 30명에게 매일 무료급식과 도시락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 공주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 비행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고은시인, 美·멕시코서 시낭송회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시를 강의하고 있는 고은시인 초청 시낭송회가 새 전년을 앞두고 미국과 멕시코에서 연말까지 잇따라 열린다.



첫 번째 시낭송회는 18일 오후 7시 미국 뉴욕 34번가에 위치한 1천2백석 수용규모의 맨하탄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유료로 열렸다. 이날 시낭송회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시인 마이클 맥클루어가 특별낭송했다. 바이올린 독주회, 소프라노 독창 등도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어 10월 8일 하버드대학, 10월11~16일까지 UCLA, 11월 10일~14일까지 시카고대학, 12월 26일~27일 멕시코 등에서 동양시낭송회를 근간으로 우주를 노래하는 고은시인의 시낭송회가 연달아 열린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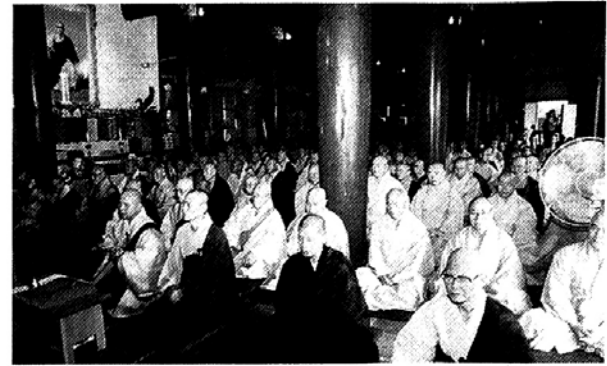
동국대-동양대 교류 논의



특히 동국학원 이사장 스님(사진위)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사진아래)은 16일 자매대학인 일본 동양대학을 방문해 양교의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96년 협정체결 이후 처음 방문한 동국원스님과 송 총장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불교대·인문계열 부분의 교류에도 이공계 분야의 교류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동양대학은 이공계 분야의 명성이 높은 곳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동대 이공계의 발전도 기대된다. 김지연 기자



불국사 월산 대종사 2주기 추모제

성림당 월산대종사 2주기 추모제가 14일 오전 11시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스님, 前총무원장 월주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법주사 혜정스님을 비롯 수덕사 법주사 금산사 주지 등 종단과 문중 지도자를 비롯 성타스님(불국사주지) 종상스님(석굴암주지)을 포함한 상좌 및 문중스님 등 5백여 스님과 경주부시장 경주시의회장 등 기관장 및 신도대표 등 재가 불자들이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제에는 헌다에 이어 월산스님의 생전 육성녹음 법문을 청취하고 헌화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위영란 기자 (ryui@buddhopia.com)

교차로

구현산 지장동상 기공식 축사



성타 불국사 주지는 9일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 김교각스님 탄신 1205 주년을 맞이해 99m높이의 지장동상을 건립하는 착공대법회에서 한국불교 대표로 “양국의 동체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불교중흥에도 공동 기여하자”고 축사를 했다.

승가대발전기금 기탁



본각 중앙승가대 비구니수행관장 스님은 최근 학교 발전기금으로 8백만 원을 기탁했다.

청소년 장학금·생활비 후원



각주 서울 삼진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0일 7명의 청소년에게 총 1백만원의 장학비를 전달했다.

21세기 불전전산화 세미나



보광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스님은 10월6일 오후2시 동국대 덕암미나실에서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 주제의 설립기념 세미나를 연다.

삼회사 문화재지정 축하세미나



월형 삼회사 주지스님은 10월7일 삼회사 문화재 지정축하법회와 ‘두타산상과 삼회사’의 민족정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삼회사·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점역 ‘원심 법공양’ 발행



덕신 조계사 장재인포교 원심회장 스님은 최근 불교신문 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월간 <원심 법공양>을 점역으로 옮긴 <원심 법공양>을 발행했다.

제1회 위덕독서대상 공모



손재석 진각종합 위덕대학교 총장은 20일 부터 10월30일까지 제1회 위덕독서대상을 공모한다.

5일 가을 학술발표회



목정배 성철선사상연구원장은 10월5일 오후2시 부산 국제신보사 강당에서 가을 학술발표회를 연다.

3군 군순단 하계수련회



이희용 대한민국의해군군순단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가톨릭이시돌수련관에 실시한다.

8 교육사학회 학술회 참석



박선영 동국대교수(교육학)는 10월2일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개최되는 일본교육사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한다.

64차 통일정책 강연회 개최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중앙회장(은평구청장)은 15일 연세대에서 제64차 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

‘문화의 자아·무아’ 주제발표



정승석 동국대교수는 10월2일 성철선사상연구원 주최의 제12회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문화의 자아와 무아’를 주제로 발표한다.

진양엔터프라이즈 이전개업



강인성 대구경북발전 회장(진양엔터프라이즈 사장)은 18일 안경전문 수출업체인 (주)진양엔터프라이즈 확장 이전 개업식을 거행했다. (053)558-4500

중앙대서 권역안 등 강의



김성녀 연극인은 최근 중앙대 겸임교수로 임용돼 99학년도 2학기부터 권역안 및 연기실습을 지도한다.

“한국유물 바로알리기 절실”

美 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 린다 최

“한국의 문화예술을 주제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해외 주요대학에 한국미술학과를 설치하고 한국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워크숍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린다 최(38·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는 해외 한국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를 위해 이같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 UCLA대학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한인 2세 불교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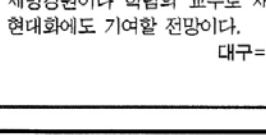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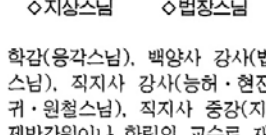
최씨에 따르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해외 박물관에는 중국관 일본관은 있었지만, 한국관은 없었다고 한다. 또 한국유물은 박물관 계산, 통로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거나 중국관이나 일본관의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관을 설치하고, 소장 유물을 복원·보관·전시하는데 소모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린다 최는 “90년대 들어 국내·

외 재단과 민간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해외박물관에 한국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 큐레이터가 부족해 깊이있는 전시기획과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앞으로 한국유물에 대한 출판·세미나 등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로 된 한국문화재 서적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본에서 출간된 일문어책이나 영문책을 통해서 한국 고미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라는 린다 최는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인재불사의 중추 삼장강사 10명

강원·학림교수...경전번역 현대화 기대



한국불교의 희망을 일굴 10명의 ‘삼장강사’가 탄생했다.

7일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10명의 졸업생들은 학림이나 불교관련 석사 또는 강원(승가대학)의 중장 이상자들로써 3년동안 다양한 강의훈련과 번역훈련을 거쳐 경전연구는 물론 기존의 강림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 삼장강사들은 재학중 역경에 전념해 지난 97년 학인 공동저서인 <금강경전서>를 발간하고 98년에는 행자교육 교재인 <고승전>을 발간하는등 승가교육에 필요한 교재들을 보듬어내는 성과를 일궈냈다.

웅각스님이 <법암록>, 법장스님이 <조담집>을, 반산·선행·현진·지상스님이 <회엄경정량소>, <법화경이야기> <능엄경사경> 및 <능엄경정맥소>, <현수법장의 화엄화개론> 및 <서장>을 각각 출간했다. 또 원철스님은 <선림승보전>을 발간했으며, 용학스님은 <불광대사전> 한글색인내 <불조지지체요질>을 엮어내 경전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일귀스님은 <수능엄경>을, 능허스님은 <월반경>을 각각 번역했다.

졸업한 스님들은 현재 해인사학감(웅각스님), 백양사 강사(법장스님), 해인사 강사(반산·선행스님), 직지사 강사(능허·현진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일귀·원철스님), 직지사 중장(지상스님), 법어사 중장(용학스님)등 제방강원이나 학림의 교수로 재직중이라 승가교육 및 경전번역의 현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봄 소원성취 수륙대제 방생 대법회 축

증명 :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각 종단 중정 큰스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세계불교승왕청에서는 오는 양력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충남 태안 이원면 만대어촌관광마을에서 새천년 「제2건국」 호국기원 소원 성취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이 기도법회에 동참하시어 꼭 한가지 소원 성취를 기원하여 이룩하고 조상이 천도되어 왕생극락하게 하여 복과 덕을 갖추게 되어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일시 : 오는 10월 15일(음9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 장소 : 충남 태안 이원면 만대어촌관광마을(서해안앞바다) ☎(0455) 675-6728
- 천안 들게이트에서 서산(국도) → 태안삼거리에서 원북면 방향 직진
- 이원면 소재지에서 약 4km(천안에서 1시간 30분정도)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회
대법주 세계승왕 인왕 신평석

- ◆ 점심식사제공 제물준비완료(허상무대설치)
- ◆ 축원(각 사당스님 또는 집행부 점수처 각사암)
- ◆ 동침 경비 부담 없음(주최측 부담)
- ◆ 동침시는 전화바람(동침안내내보 보내드림)

□ 후원 : 만대어촌 관광마을

이날 행사는 새천년 「제2건국」 호국비 제막식과 정치·경제·사회 각계인사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반여 불자가 움집한 가운데 TV, 라디오, 신문등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